1. 머리말

1993년 일본 오사카지역을 중심으로 오카모토 주식회사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렸다. 오카모토 주식회사가 과거 전쟁 때 제조되었던 콘돔의 대명사였던 '돌격일번'을, 같은 이름으로 다시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일본의 활동가들이 집회를 조직한 것이다.[1]

한국에서는 일본군 '성노예'[2] 피해를 받은 생존자가 최초로 자기공개를 한 후, 이에 힘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규명과 해결을 위한 운동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여성운동계, 재일한국여성들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쳐, 일본 내에서도 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와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1991년 요시미(吉見義明) 교수가 일본군 성노예제[軍 '慰安婦' 制]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을 입증한 이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일본군,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등도 역시 이 제도의 성립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들이 밝혀진 바 있다. 모든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은 정부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전쟁산업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글은 전쟁중 일본정부와 삿쿠 생산기업이 일본군 성노예제 운영에 어떻게 관여되어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일본기업 특히 삿쿠(콘돔) 생산회사(오카모토 고무주식회사)의 생산과 일본군의 배부과정 등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왜 하필 삿쿠를 통해 밝히려 하는가. 그 이유는 삿쿠가 당시 일본군 '위안부' 제 운영에 핵심이었던 군인들의 성병 예방 문제와 관련되어있고, 한편으로 성노예가 된 여성들의 몸 – 인권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일제와 삿쿠 생산기업은 과연 어떤 고리를 통해 관련되어있으며, 삿쿠가 어떠한 체계를 통해 일선 군인들에게 제공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군 '위안부' 제의 순환고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리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① 전쟁시기 일제의 여성 몸에 개입한 방식과 성노예가 되었던 여성들의 몸에 미친 영향, ② 일본정부의 성병대책, ③ 삿쿠 생산과 배부체계를 통해 일본정부와 기업의 성노예 제 존립에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차례로 살펴나가겠다.

2. 삿쿠(콘돔)를 통해 도구화된 여성의 몸

조선사회에서 굳게 감추어져있던 여성의 몸, 성은 공창제에서 보듯 일제의 권력이 침투, 개입하면서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시체제기에 가면 일제는 일본의 '일반' 여성들에게도 성통제정책을 펴 피임을 금지한다든지 우생학적 문제가 있으면 낙태를 시키거나 아예 생식기능을 없애는 등 국가, 사회의 이름으로 성을 통제하고자 했다. 1930년대 초부터 일본여성의 피임, 낙태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각종 법규[3]를 만들어낸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일본에서와 달리 조선에는 이런 법규가 없었으나, 일제말기에 가면 조선에서도 산아장려책이 구호로 등장하는 등 개인적 영역에 속하던 임신 · 출산문제에까지 국가의 관리 및 통제가 가해지게 되었다.[4]

군 '위안부' 제를 설치한 일본정부, 군의 의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병예방이었다. 어떤 여성들을 동원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였다. 현재 한국정부에 신고한 피해자들 중에 공창이나 사창에 몸담고 있던 여성은 거의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본인 군 '위안부' 여성들과 다른 점이라고 알려져있다. 조선인이라고 '일반' 여성만 동원하고 일본인이라고 매춘여성만 동원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인 피해여성들은 거의 자신을 공개하지 않고, 드러난 경우를 보면 '위안부'가 되기 전에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본 점령지나 식민지에서 매춘여성보다 '일반' 여성이 연행되었던 것은 각국의 증언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물론 공개한 이들이 피해자의 전부가 아니고 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히려 공개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의 존재 역시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인 여성에 비해 식민지 · 점령지 여성의 연행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전쟁의 폭력성과 함께 성병 예방이란 일본군의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성노예가 있다고 해서 성병 예방이 무조건 담보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군인이 오히려 병의 원인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병 예방을 위해 군인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성노예가 된 여성들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군인들은 성병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치료로 대응했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 사고로 인해 성병에 걸린 군인들에게 감염된 경우도 많았다. 결국 일본군은 삿쿠 사용과 군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인 성병 검사, 성병 감염자에 대한 606주사(매독주사약 살바르산을 말함)와 같은 치료제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머물렀다.[5] 바꿔 말해서 군 '위안소'를 만들고 연행한 여성들에게 반복적인 성폭력과 각종 정신적 육체적 모욕 등을 가하여 성노예로 삼고, 이들을 최대한 도구화하기 위한 성병 방어막으로 준비되었던 것이 바로 삿쿠였다.

노예적 처지에 있었던 여성들은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삿쿠 사용지시를 적극 수용하여 삿쿠가 부족할 때는 씻어서 소독약을 발라가면서까지 사용했다. 이는 생존자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난다.

만주로 연행되었던 문필기 할머니는 "평일 낮에는 주로 내 옷을 빨거나 삿쿠를 씻었다. 군인들이 쓰고 간 삿쿠를 안팎으로 깨끗이 씻어서 소독하고 약을 발랐다가 다시 사용했다"고 하며, 미얀마로 연행되었던 김복선 할머니는 "삿쿠는 우리에게 맡겼다. 그런데 삿쿠가 아주 귀했다. 그래서 한번 쓴 삿쿠를 병에 모아두었다가 시간이 있을 때 냇가에 가서 빨았다. 비누로 씻어서 햇볕에 말린 다음 하얀 가루로 된 소독제를 뿌려 다시 사용했다. 이 일을 할 때가 제일 싫고 죽고 싶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명령도 있었겠지만,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다.[6]

그런데 삿쿠를 사용한다고 해서 성병이 완전히 예방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삿쿠가 모든 일본군에게 균등하게 지급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삿쿠 사용의 목적은 성병 방지와 더불어 피임의 효과에도 있었다.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성노예제가 만들어진 의도였던만큼 성노예가 된 여성은 성병에 걸려서도 안되지만 임신을 해서도 안되었다.

일본군이 정한 「위안소 규정」과 삿쿠 사용에도 불구하고 성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경우 606주사를 맞았다.[7] 『증언집』에 실린 66명의 피해자는 연행시 평균나이가 만 16.5세였고 절대다수가 성적 경험이 없었다고 하므로 당연히 성병은 '위안소'에서 군인들에게 감염된 것으로 봐야 한다. '위안소'에서 성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고 답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감염되었을 수 있다. '위안소'에 설치되어있던 각종 예방약은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고,[8] 매독같이 심한 성병이 아니면 성병으로 취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후방에서는 '낳아라' 라는 구호가 난무하며 인구증가책이 실시되었지만, '위안소' 여성들은 대개 낙태를 했다.[9] 이것은 군대와 일반사회가 선명히 갈리지는 지점이다. 또한 여성을 분리 통제한 지점이다. 성노예가 된 여성에겐 피임기구의 사용을 강요하고, 후방의 여성에겐 낙태만이 아니라 피임까지도 범죄시하여 여성의 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부정했다. 여성들을 오로지 전쟁수행의 도구 또는 전쟁을 수행할 인간을 생산하는 도구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로 내용은 달라도 여성의 성이 국가의 관리대상이고 도구화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성노예가 된 여성들은 삿쿠를 씻어서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지키고자 했으나, 성병에 걸릴 경우 치료라는 이름하에 수은, 606주사, 각종 치료제들로 온몸이 실험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생식기능을 잃었다. 피해자들이 바랄지 못한 소망 중에 가장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평범한 여성으로서 짝을 맞고 오손도손 사는 것이었다. 그 소박한 꿈이 일본군 성노예 경험으로 갈기갈기 찢긴 것이다.[10]

민간인을 연행하여 '위안부'로 삼았던 일본군부는 일반여성들에 대해서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일본군에 대한 반감, 적개심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인회 등 부인회를 조직하고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고, 일본군인 환송 환영, 군사훈련, 방공호 설치작업에 끌어내는 한편 연합군에 대한 공포심과 적대감을 꾸준히 주입시켰다.

1992, 1993년 일본정부에 의해 공개된 오키나와 주둔 제24사단 예하부대산 제3475부대의 「내무규정」(1944년 12월부터 시행) 부칙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영업부의 공유관념을 철저히 하고 점유관념을 엄금할 것"이라고 하여 군인들의 위안부에 대한 감정을 엄금하고 성욕배출 대상자로만 국한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위안부에 대해서는 "업부는 사용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누구라도 공평을 제1로 하여 사용자로서 최대 봉공(奉公)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라도 몸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여 봉공에 빠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사 세심하게 주의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11]라고 했다. 여기서 봉공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으로써 국가에 봉사한다는 관념을 위안부들에게 주입하려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대부분이 사회의 기층 출신인 이들 일본군 성노예 여성에게 이렇게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편 것은 황국신민으로서 전쟁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충실히 기능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3. 일본군의 성병 예방대책

일본군이 침략전쟁을 펴면서부터 강간 등 범죄행위가 빈발했고 성병감염도 많아졌다. 침략전쟁과 반인륜적 범죄는 늘 함께 가는 것이지만, 일본군 수뇌부는 시베리아 출병시 전사자보다 성병감염에 의한 손실이 더 많았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군이 취한 성병 대책은 기본적으로 '위안소'를 만들고 위생시설을 완비하여 '위안부' 이외에 다른 성적 접촉을 엄격히 근절한다는 데 있었다.[12] 이는 군 '위안부' 제를 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목적 중 중요한 것이 성병대책이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본군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군의관의 반응이 주목된다.

> 일본군인은 어째서 이와 같이 성욕에 어성을 잃는 것일까 하고 나는 대륙상륙과 동시에 바로 통탄했고, 전장생활 1개년을 통해 시종 통감했다. 그러나 군당국은 굳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더욱이 이 방면에 대한 훈계는 들어본 적이 없다. 더구나 군경영 위안소를 활발하게 설치하여 군인을 위해 천업부(賤業婦)를 제공했다. 그래서 창부에게서 얻은 성병이 군인들 사이에 만연했다.…… 장교들이 솔선해서 위안소를 출입했으며 병사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여 위안소는 공용으로 정해졌다.…… 위안소에 가지 않는 병사더러 미쳤다고 욕을 한 장교마저 있었다.[13]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군인의 태도와 군 '위안부' 제도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군 '위안소'를 위생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위안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말한다. 일본군에서는 '위안소'를 이용할 경우 "여자는 모두 보균자로 생각하고 방독(防毒)에 만전을 기할 것"[14]이라고 하여 성노예 여성에게 상시적으로 소독액 및 각종 살비약, 삿쿠와 성비교 등 연고를 사용하게 했다. 또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성병 감염시 606주사 등 치료제 투약과 감염자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 각 부대 수준에서 규정을 정하여 군인만이 아니라 각 '위안소'에서도 이에 따르도록 했다. 군 '위안부'의 제도화와 더불어 군 '위안소'의 출입을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성병 예방이란 이름하에, 또 군인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데 이용하려는 상급자들도 있었다. 실제로 전선에서는 군 '위안소' 출입 외에는 따로 외출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15] 간혹 의식있는 군인이나 군의관 중에서는 운동이나 건전한 오락을 통해 군인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인식한 경우도 있었으나, 일본군 수뇌부에게는 그러한 조치를 실행할 여유나 의식이 없었다.[16]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중국에서 1942년 이전에는 각급 부대와 군 '위안소'에다 삿쿠를 각각 무료 혹은 유료로 비치한 경우가 많았다. 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후에는 대부분 '위안소'에 삿쿠를 제공하여 비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쟁이 확대되고 모든 물자가 통제되면서 1940년대에는 상하이 같은 국제도시에서조차 피임기구를 구할 수 없었다. 과거에는 '위안소'에서도 삿쿠를 구입하기도 했으나 이제 군에서 '위안소'에 제공해주는 상황이 되었다. 일반인들은 피임기구를 사용해서도 안되고 사용할 수도 없었던 때에 군대를 위해서는 삿쿠가 특별히 생산, 공급되었다.

1942년 9월 지나파견군 총사령부에서는 군인 1명당 2개월에 1개씩 위생삿쿠를 지급했지만, 전쟁말기에 오면 각 '위안소' 경영자에게 삿쿠를 불하하라는 방침을 내리고 있다.

1. 종래 위안소에서 사용하는 삿쿠는 각 업자가 시판물을 구입해오는 등루자(登樓者 : 위안소에 온 사람)에게 반드시 무료로 지급해왔으나, 최근 시판물이 품절되어 입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2. 상하이지구같이 군에서 위안소를 설치하고 있고, 또 규정에 의해 각 업자로 하여금 등루자에게 반드시 교부, 사용케 하기 위해 각인에게 삿쿠를 지참하게 하는 것보다 각 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3. 종래의 상황을 반성함에 등루자가 '삿쿠'를 지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즉 각인에게 교부하게 되어있는 '삿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무용하게 버려지거나 혹은 군위안소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찰한다.

4. 각인에게 '삿쿠'를 지참하게 할 때는 이것을 이용하여 군위안소 이외의 장소에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사고발생 유인으로 될까 걱정스럽다. 그러므로 1개월 사용량은 약 43,000개이고 이것을 제7331부대 주보부(군대물품을 제공하는 부대)를 이용하여 위안소계에서 통제, 안배하여 각 업자에게 불하하도록 한다.[17]

1944년부터 오키나와에 주둔한 제62사단에서도 위생삿쿠는 후방시설 담당부대에 일괄 교부하여 직접 '위안소'에 비치[18]하게 되었다. 버마에선 여러가지 타입의 피임도구를 충분히 지급받고 있었으며, 또 군인들도 군에서 지급된 피임도구를 지참하는 경우가 많았다.[19] 삿쿠 사용과 배부는 일본군에게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전쟁말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잘 배부되고 있었다.

군 '위안소' 이용절차를 보면, 군직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필리핀 마스바데도 경비대에서는 '위안소'에 들어가 접수에서 번호표를 받아 순서를 기다리고, 요금은 '위안부'에게 건네주고 1세트에 5전하는 삿쿠 및 예방약을 '위안부'에게서 받았다.[20] 한편 마닐라 병참지구대에서는 일본군인 전용 '위안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재마닐라 인가 음식점 위안소 규칙」(1943년 2월 발행)을 정해 "경영자는 위안소 이용객에게 군표와 교환으로 '위안권'을 주며 접대부는 받은 '위안권'을 기록"해놓았고, "위안소에서의 요금은 마닐라지구 병참 담임장교가 군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했다. 또 위안소 경영자는 성병 예방기구를 준비하여 접대부에게 이것을 활용하게 해야 하고, 다른 성병 예방조치로서 소독제(농도 1/2000의 과망간산칼륨 또는 0.5%의 크레졸 용액)를 용기에 넣어 변소 또는 그밖의 특정 장소에 두었으며, 삿쿠 사용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접대부와 접촉을 금지시키고 접대부 방에는 바셀린을 비치하게 했다.[21]

라바울 제15방공부대의 경우 이용자가 각기 삿쿠를 소지했다. 삿쿠가 매점에 없을 때는 부대소속 병사용으로 1개에 10전씩 약간 양이 '위안소'에 준비되어있었다. 미얀마에서는 1시간에 2원의 이용권을 살 때 삿쿠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부대본부에서는 신청하는 대로 삿쿠를 지급해주었다고 한다.[22]

이와 같이 일본군은 북동부 알류산 열도의 키스카섬과 앗츠섬까지, 남동부 뉴기니아 포토모레스비와 카다르카날섬을 향한 군인에게, 서쪽으로 엔더만 니코바로제도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각급 부대나 위안소에 삿쿠를 배부하는 한편, 위안부에 대한 위생검사를 통해 성병을 예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군인의 성욕충족에만 집중하여 대부분의 젊은 군인들을 위안소로 몰아넣는 비인간적이고 기괴한 제도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4. 삿쿠 생산과 공급에서 일본정부와 기업의 역할

1) 오카모토 주식회사의 삿쿠 생산

일본군 성노예제 운영과 존속에는 일본정부 못지않게 일본기업의 역할도 컸다. 여성의 몸을 성노예화하는 데 종사한 일본기업으로, 이 글에서는 삿쿠를 생산한 오카모토(岡本) 주식회사를 다루고자 한다.

일본에서 삿쿠가 처음 생산된 것은 1909년 고시마공업(小島護謨工業)에서 만든 '하트미인'이 그것이었다. '하트미인'은 유명한 일본 유곽거리 요시하라(吉原) 입구에서 선전되었는데, 이는 삿쿠가 여성이 자기 성에 대한 결정권으로서 갖는 피임도구가 아니라 성병 예방구로서, 남성들의 요구에 의해 우선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력증강 정책안으로서 피임은 금지되었지만, 삿쿠는 성병 예방구로서 더욱 강한 색채를 띠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경향에 한층 박차를 가한 것이 1928년 「화류병예방법」이었다. 삿쿠가 방독구로서 전면에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일본 패전까지 20년간 삿쿠는 성병 예방구로서 수요를 지탱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생고무의 민수용 소비는 극도로 억제되었고 삿쿠는 군수품으로서 성격을 띠게 되었다.[23]

먼저 현 오카모토 주식회사, 특히 오카모토 일가의 삿쿠 제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자. 창립자 오카모토 미노스케(岡本已之助)는 1933년 라텍스제 스킨을 개발하고, 1934년 오카모토 고무공업소를 설립하여 '스킨' 제조에 들어갔다. 1935년 8월에는 자기 공장을 마련하였고, 1936년 8월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자본금 10만 엔의 국제고무공업주식회사(이하 '국제고무')로 회사 이름을 바꾸었다. 당시 종업원은 남녀 50여 명이었으며 1일 생산량도 하루 280그로스(1그로스는 12다스×12개로 144개. 1그로스의 가격은 1엔 정도)로 비약적으로 증대했다.[24] 곧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터에서의 삿쿠 수요가 격증하자 국제고무는 증산을 도모했으며, 1938년에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삿쿠 자동생산기 제1호를 완성하여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여러한 삿쿠의 증산·자동화 과정은 군 수요의 확대 및 일제의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곧 12월에 일본정부는 「생고무배급통제규칙」을 공포(즉일 실시)하고 고무공련(工聯 : 생고무 배급할당을 결정하는 상공대신 지정의 통제단체)을 중심으로 하여 생고무에 대한 배급통제를 실시했다. 1938년 4월에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고, 7월에는 「고무배급통제규칙」이 공포(즉일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 속에서도 군수용 삿쿠는 무한정 생산되었다.

1939년에도 육군성 내 임시육군동경경리부는 도매상을 통해 군수용 삿쿠를 구입했다. 그러나 오카모토 일가는 곧 임시육군동경경리부와 삿쿠를 직거래하게 되었다. '군과 바로 거래하는 편이 좋았기 때문'이다. 국제고무는 1939년 이후 임시육군동경경리부 지정 공장이 되어 최대한 증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40년에 가면 자본금 19만 엔으로 증자하기에 이른다.

당시 임시육군동경경리부가 삿쿠공장으로 지정한 곳으로는 오카모토 일가의 국제고무공업 외에 오사카 고무공업도 있었다. 오사카 고무공업은 (일본) 삿쿠의 대명사였던 '하트미인' 상표권을 매수한 삿쿠 메이커로서, 또 하나의 삿쿠 대명사인 '돌격일번'이라는 이름도 오사카고무의 사장[坪田勝]이 붙인 것이었다. 오사카고무는 공장의 규모가 국제고무보다 커서 군으로부터의 주문도 6 : 4로 우위에 있었던 일본 삿쿠기업의 대표였다.[25]

그러나 일제말기의 기업정비조치[26]에서는 국제고무만이 살아남아 1941년 9월에는 오사카고무까지 합병했다. 이 합병으로 국제고무의 겨술은 대폭 향상되었고 규모면에서도 업계 최고가 되었다.[27]

공장의 규모도 더 크고 전통도 있었던 오사카고무를 합병하게 된 데 대해, 국제고무의 오카모토 쇼자부로(岡本正三郎)는 "운이 좋았다. 오사카고무의 대표가 죽고, 군에서 보살펴주어 오사카고무공장을 흡수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왜 군에서는 오카모토 일가의 국제고무공업을 키워주었을까? 그것은 육군 수품창 및 군부와의 유착에 의해 가능했다. 1941년 1월 24일 태평양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쟁 개전을 앞두고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수품창이 발족하면서 삿쿠 등 군대에 사용되는 일용품의 조달과 배포를 모두 이곳에서 맡게 되었는데, 이 수품창의 장으로 부임한 사람이 바로 오카모토 쇼자부로의 처외가쪽 4촌이었다.

같은 해에 국제고무는 군의 감독공장으로 지정되었고, '돌격일번'은 증산체제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600평에 지나지 않았던 부지를 2,000평으로 확장했고, 감독공장에서 관리공장으로 승격하면서는 확실히 '군수'공장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량형 자동생산기 8대를 신설하여 종업원 200명에 하루 1,000그로스 생산으로 급성장했다.[28]

그리하여 이 회사의 군수품 수주액은 전년에 비해 200% 이상이 늘어났고, 이를 완납하기 위해 자동생산기를 더 확보하고(12대) 고무 재생방식을 개량하여 열악해진 재료공급 부족을 보충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1943, 44년에는 24시간 내내 기계를 중지하지 않고 조업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당시 국제고무가 수품창에 납입한 콘돔 수량은 월평균 100만 개였다(수품창 감독관으로서 국제고무의 관리감독을 지낸 池田三一 전 육군중좌의 증언).

국제고무에서 생산된 '돌격일번'은 수품창 → 야전화물창 → 각 연대, 독립대대 → 중대 → 병사를 거쳐 흘러들어갔지만, 이러한 "정규 루트"로는 공급이 충분치 않아 만주나 중국 특히 남방에서는 현지 생산으로 부족분을 보급하는 실정이었다. 자바에도 콘돔 공장이 있어서 일본인 지도원이 현지인을 고용하여 원시적인 방법으로 생산, 군에 납부했다고 하며, 라바울 지역 포포코지구의 위안소가 폭격을 받은 자리 아래에서도 대량의 콘돔이 발견되었는데 이것 역시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었다고 한다.[29]

국제고무가 원래부터 생산하던 '스킨'의 경우 원가는 개당 1.01엔인데, 군납품가는 1.20~1.30엔이었다. 자재 등은 전부 군에서 지급되었고, 매입도 전부 군이 했다. 이러한 호황 속에서 1943년 4월에는 자본금 45만 엔으로 증자했고,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1944년에는 조선 경성에도 오카모토 고무공업소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 공장은 원래 만주에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오카모토 미노스케가 현지 시찰을 한 후 적당한 용지가 없어 주춤하던 중에 조선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경성공장에서는 1944년 8월경부터 제품이 생산되었다. 하루 100그로스 정도로서 규모는 작았지만, 전시라는 특수상황에서도 원료공급·제품판매·자금조달의 3박자가 척척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제품의 판로는 조선 육군경리사무소와 상의하여 원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결정되어 곧 매상이 시작되었다. 생산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야스다(安田)은행 조선지점에서 5만 엔을 차입했다.[30] 이것은 국제고무가 군, 은행 등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45년 2월 국제고무는 자본을 120만 엔으로 증자했다. 이로써 1936년 자본금 10만 엔으로 출발한 지 9년 만에 12배의 증자를 이루었고, 삿쿠 생산업계는 물론 고무공업계에서 거물이 되었다. 1945년 8월 국제고무는 오카모토 고무공업주식회사[31]로 상호를 변경했고,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더욱 커져서 현재 세계적인 삿쿠 생산업체 오카모토 주식회사가 되었다.[32]

삿쿠 생산은 정부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고 군에서 자재공급이나 판매를 완전히 해결해주었지만 기업주의 오카모토 고무주식회사 소유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 덕분에 기업은 군에 삿쿠 등을 안정적으로 납품함으로써 자본축적을 꾀할 수 있었다. 전시라는 극도의 통제경제하에서 일본정부가 허용하는 기업이 아니면 은행의 지원이 불가능했던 당시의 현실을 생각하면, 오카모토고무에 대한 지원은 곧 국책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정부 차원의 결정이나 강요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축적하고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기업이 생산한 삿쿠와 606주사는 군수품으로 거의 대부분 납품되었으므로 이 기업들의 자본축적은 일본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충실히 따르는가와 직결되었다. 일본정부는 군납품 생산기업에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군 '위안부' 제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군 '위안부' 제를 만들고 운영한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 전쟁범죄의 책임은 일본정부만이 아니라 일본기업도 역시 져야 할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2) 일본정부의 삿쿠 배부체계

삿쿠 배부는 일본 육해군에서 모두 실행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육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육군 중앙에서는 삿쿠를 구입하여 어떻게 하급부대에 배급했는가.[33]

1941년 1월 이전에는 임시육군동경경리부에서 삿쿠를 군에 납품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육군 수품창에서 군대의 일용품을 일괄 공급했다. 육군성과 하급부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육아밀대일기(陸亞密大日記)』(이하 육아밀) 1942년 제21호의 「진중용품정비(陣中用品整備)에 관한 건」과 이와 관련된 『육아밀』 제989호(1942. 3. 30) 등에서 일단의 틀을 만들 수 있다.

삿쿠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한 곳은 육군성 경리국 건축과다. 육군성 대신과 '차관' 란에는 위임했다는 '委' 자가 찍혀있고 고급부관(高級副官), 주무부관(主務副官), 주무국장(主務局長 ; 경리국 대리), 주무과장(건축과), 주무과원의 도장이 있고 '연대' 란에는 주계(主計)과장(경리국)과 전비(戰備)과장 도장이 찍혀있다. 그리고 대본영 육군병참 총감부 참모장,[34] 육군 수품본창장이 직접 관련되어있다. 육군성 고급부관이 위임을 받아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육군성 대신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임 도장이 찍힌 것은 관례였으므로 굳이 대신의 허가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진중용품정비에 관한 건」이라는 육군성의 방침을 육군 수품본창장에게 통첩(『육아밀』 제98호, 1942. 3. 30)하여 실행케 한 것이다. 1942년 「진중용품정비계획」에 의하면, 삿쿠는 진중사무용품으로 분류되어있다.[35] 이 문건은 병력에 대한 연간 소요량의 약 8할을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계상한 '위생삿쿠'의 소요량은 1,530만 개였다. 이 수치는 연간 소요량의 약 8할이니 실제 소요량은 1,912만 5,000개가 되는 셈이다.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할 삿쿠의 개수를 육군성에서 정했다는 점이다. 삿쿠는 다양한 진중용품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실제로 경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에서 차지한 비중은 반 이상이 아닐까 생각된다.[36]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일본 육군성에서 군인들의 성병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의 관리감독하에 둔 이유와도 직결된다.

1942년 4월 중순 일본육군은 총병력 249만 명 중 지상 약 223만 명, 항공 약 10만 명, 나머지 선박부대 · 관아 · 학교 등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지상병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방 42~43만 명, 중국 63만 명, 만주 · 조선 78만 명, 내지 · 대만 40만 명[37]이었다. 여기서 외지는 당시 만주와 조선 중에서 만주만 포함되므로 1941년 12월 시점과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만주 등 외지 병력은 170 수만 명으로 추정된다. 1,912만 5,000개를 170만 명으로 나누면 11개 남짓 되므로 외지 병사 1명당 연간 11개, 즉 월 1개의 '위생삿쿠' 지급계획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38]

육군중앙의 '위생삿쿠' 교부는 남방군, 지나파견군, 남지나방면군 등의 청구를 기준으로 행해졌으며, 청구 경로는 육군성 부관이 육군 피복본창장(陸軍被服本廠長)과 육군 수품본창장에게 통첩을 발하여 배부되었다.[39]

각 군에 교부된 위생삿쿠는 군 조직을 통해 말단 병사들에게 교부되거나, 군의 관리감독하에 군 '위안소'로 배부되기도 했다. 이렇듯 '위생삿쿠' 교부방침은 군인 성병 예방책의 일환이자 군에 의한 '위안소' 관리 · 운영의 일환으로 결행된 것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위생삿쿠의 배부선을 좇아가면 '위안소'가 설치된 장소나 '위안부' 수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보듯이 삿쿠는 일본군 성노예제도를 유지 · 존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용품이었다. 즉 삿쿠는 일본군이 전쟁터에서 장기간 성병감염에 대한 두려움없이 '위안소'라는 강간센터에서 강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 도구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삿쿠와 삿쿠 생산기업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도를 유지 존속시키는 데 일본정부는 물론 삿쿠 생산업체인 오카모토 주식회사가 어떻게 기능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오카모토 주식회사는 거의 모든 생산품이 민수용이 아니라 군 '위안소'에서 비인도적 목적으로 쓰이는 군수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증식해갔다. 따라서 앞으로 군 '위안부' 제가 유지 · 존속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삿쿠 등과 같은 군수용품 생산기업들에게로 시야를 확대시켜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글을 맺으면서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에 대한 것이다. 지금 한국 내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서 한국정부에 신고등록을 한 분으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를 시작으로 2002년 3월 말 현재 206분(그 중 141명이 생존)이 계시다. 이분들의 용기는 이 문제를 고발하는 데 매우 소중한 힘이 되었다. 그러나 대개의 피해 할머니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 속에서 과거를 잊으려고 하였기에, 이들의 기억만으로는 과거의 범죄시간, 장소, 범죄책임자를 드러내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된 자료가 일제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파기되었다. 물론 일본 내의 자료들도 전쟁범죄를 은폐하려고 조직적으로 파기된 면이 있지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시간적, 물질적 제한으로 일본 등지의 소장자료를 일일이 뒤지면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일본 등지의 연구자들과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보충해나가고자 한다.

벌써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움직임은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좀 더 많은 사람의 힘이 모아지길 기대하면서 윤두리 할머니의 말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나는 꼭 여자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부모 밑에서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사람에게 시집가 자식 낳고 살고 싶다.…… 밤에 자다가 깨면 '내가 왜 이렇게 독수공방을 하나? 내가 왜 이리 혼자 사나?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었나?' 하는 생각에 잠이 달아나버린다.…… 남의 일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일본은 이제 와서 발뺌을 하니 되는 소린가? 시집도 못 가게 남의 일생을 망쳐놓고 입에 발린 사과나 한다니 말이나 되는가? 내가 눈감고 죽기 전에는 내가 당한 일을 잊을 수 없다. 아니 죽어서도 못 잊을 것이다.

주

1) 이 활동의 결과물은 2·8집회 실행위원회, 『'돌격일번' 은 살아있다! 오카모토(주) 규탄! 자료집』, 오사카 : 1993.

2) 일본군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여성들을 당시 일본정부나 군에서는 주로 '위안부' (경우에 따라 賤業婦, 娼婦, 接待婦라 부르기도 한다)라고 불렀다. 그것은 성노예로 동원한 여성에 대한 일본군이나 일본정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고, 피해여성의 시각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용어이다. 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노예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당시에 '위안부' 라는 용어가 쓰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역사적 용어로서 '위안부' 도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강간센터에 대응하는 '위안소' 란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3) 1930년 12월 27일 내무성령(令) 제40호 「유해피임기구 취체법」 공포(1931년 1월 10일 시행)와 1933년 내무성령 「진료서취체규칙(診療録取締規則)」의 공포, 「위시법(醫師法)」 개정 등에서 알 수 있다(藤目ゆき, 『性の歷史學』, 不二出版, 1999, 271쪽).

4) 다만 일본에서와 달리 조선에서는 개입이 거의 형식적인 독려의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양가 감정, 즉 징병제 실시 등과 같이 조선민족을 일제체제 내에 편입시켜야 하는 측면과 전쟁말기까지도 믿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본(「제85회 제국의회 설명자료」, 『근대사료연구집성』 1, 조선사료연구회, 110쪽) 양 측면은 조선여성에 대한 태도에도 반영이 되어 일본여성에 대한 정책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 이 문제는 다른 주제이므로 다음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다.

5) 606주사가 조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통적 방식으로 수은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6) 이하 조선인 군 '위안부' 관련 내용에서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은 대개 한국정신대연구소 등,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 1~5권, 1993~2001)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7) 아래 표는 군 '위안부' 로 강제된 이후 성병과 주사약 등으로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략하게 표로 작성한 것이다(『증언집』 참조). 이 통계는 이 논문을 위해 따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병, 임신, 낙태경험들이 실제보다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성병경험 부분에서 자신은 성병감염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경우를 합산했다. 강간센터 '위안소'에서 유산했으나 여기서 놓여난 이후 계속 무자식상태일 때도 무자식으로 처리했다.

증언집 권호/인원수	삿쿠 사용	무자식	성병경험	무자식	'위안소' 내	낙태
				606 등 주사경험		임신
1/19	17	11	7	5	0	
				6	1	
2/15	14	9	5	5	1	
				5	1	
3/14	13	7	4	2	2	
				4	2	
4/9	4	5	3	3	1	
				3	4	
5/9	8	6	4	3	1	
				4	1	
합 66	56	38	23	17	5	
				21	9	

8) 「サンタクルース」 患者療養所 第16師團 第2野戰病院 第2半部の一部, 1944. 5(吉見義明, 『從軍慰安婦』, 大月書店, 1992, 337쪽)에서 임질 치료방법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붕산수액은 세척제로 쓰이기도 했다.

9) 신고피해자 중 간단한 질문에 응할 수 있었던 이들까지 포함한 자료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증언 통계 자료집』(2002, 83쪽)에 의하면 위안소에서의 임신은 120명 중 22명이었다.

10)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피해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자식의 유무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 한국사회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을 여성의 책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피해여성들이 군 '위안부' 경험만이 아니라 출산 여부를 자기 생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1) 沖繩縣 浦添市, 『浦添市史』, 1984.

12) 教育總監部, 「戰時服務提要」, 1938. 5. 25(吉見義明, 앞의 책, 161~163쪽).

13) 國府臺 陸軍病院 附 軍醫中尉로 있었던 하야오의 증언, 「戰場における特殊現象と其對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策」(1939. 6)(吉見義明, 위의 책, 232쪽).

14) 獨立攻城 重砲兵 제2대대, 常州 駐屯間 內務規定, 1938. 3. 16(吉見義明, 위의 책, 207쪽).

15) 제2군사령부, 제2군 상황개요, 1938. 12. 10(吉見義明, 위의 책, 213쪽)에 의하면, 현재 중국 무한지역에 있었던 제2군 예하 부대원에게 "외출은 경비제일주의에 따라 당분간 인솔외출, '위안소' 출입을 위한 외출 외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여러한 예는 다른 일선 부대에서도 보인다.

16) 연합군측은 "신체단련을 위한 대책은 분명히 일본군 병사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서태평양에서는 스포츠경기 계획 실시를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聯合國軍總司令部翻譯通譯課, 日本軍隊における生活利便施設(ATIS調査報告第120號), 1945. 11. 15(吉見義明, 위의 책, 494~496쪽)].

17) 支那派遣軍總司令部, 昭和17年9月副官會同席上意見, 質疑及回答 1942. 10. 3(『육마밀대일기』 제39호, 1942 ; 吉見義明, 위의 책, 271쪽).

18) 第62師團, 石兵團會報, 第64號, 1944. 10. 2(吉見義明, 위의 책, 414쪽).

19) アメリカ戰時情報局心理作戰班, 日本人捕虜訊問報告 第49號, 1944. 10. 1(위의 책, 446쪽).

20) マスバテ島警備隊, 軍人俱樂部規定, 1942. 8. 16(위의 책, 322쪽). 여기서 요금이란 군표나 필리핀 화폐를 일컫는 것으로 생각된다.

21) 聯合國軍總司令部翻譯通譯課, 日本軍隊における生活利便施設(ATIS調査報告 第120號), 1945. 11. 15(위의 책, 503~544쪽).

22) 聯合國軍總司令部翻譯通譯課, 日本軍隊における生活利便施設(ATIS調査報告 第100號)(위의 책, 528쪽).

23) 위의 책, 270쪽.

24) 岡本理研 고무주식회사 오십년사 편찬위원회, 『岡本理研 고무주식회사 오십년사 소사』, 東京, 1984, 10~12쪽.

25) 위의 책, 285쪽.

26) 1941년 「인구정책 확립요강」으로 인위적 산아제한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이후 일반용 삿쿠 생산은 크게 감소했으나, 대신 '돌격일번', '데츠가부투'(철투구) 등 군대용 삿쿠는 다량 증산되었다. 그리고 1941년 6월 일본정부의 「고무산업정비실시방침」으로 고무산업계는 큰 변동을 겪게 된다.

27) 岡本理研 고무주식회사 오십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3쪽.

28) 위의 책, 286쪽.

29) 佐野眞一, 『性の王國』, 東京 : 文藝春秋, 1981, 286~287쪽.

30) 위의 책, 20~23쪽.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31) 이후 오카모토 고무공업주식회사는 1968년 니혼니켄(日本理研)고무(리켄고무와 일본 고무가 합쳐져 만들어진 회사) 등의 주식회사와 합쳐져 오카모토리켄 고무주식회사가 되었고, 현재 오카모토 주식회사가 되었다.

32) 岡本已之助의 岡本理研고무와 동생 岡本忠大의 不二라텍스의 생산량이 1980년대 초 일본 전체 삿쿠 생산의 80%를 점했다고 한다(佐野眞一, 앞의 책, 272쪽).

33) 위생삿쿠 교부과정에 대해서는 하야시 교수의 앞선 연구와 그가 제공해준 자료가 크게 참고되었다(林博史, 「陸軍の慰安所管理の一側面— '衛生サック' 交付資料を手がかりに」, 『전쟁책임연구(the Rerort on Japan's War Responsibility)』 창간호, 1993년 가을, 12~19쪽).

34) 병참총감부는 大體營으로 설치된 기관이고, 총감은 참모차장이 겸임한다. 참모본부 제1부는 작전 · 병참 · 항공 · 방위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병참총감부 참모장이 직접 관련되어있는 것은 참모본부의 중추가 관련되어있다는 것이다(林博史, 위의 글, 15쪽).

35) 진중용품으로는 ① 진중사무용품항에 용지류나 봉투, 각종 전표, 잉크나 묵즙, 철필, 연필, 등사판용구 등 154종류, ② 등화용 연료, ③ 방역재료항에 '위생삿쿠'를 포함하여 12종류가 열거되어있다.

36) 당시 군납 삿쿠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오카모토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스킨 가격이 개당 1.20~1.30엔이었다는 것에 기초하여 1,530만 개를 계산하면 1,836~1,989만 엔에 이른다. 이 금액은 진중용품 경비의 53%에 해당한다.

37) 방위청 방위연수소전사부, 『陸軍軍戰備』, 朝雲신문사, 1979(林博史, 앞의 글, 13쪽에서 재인용).

38) 林博史, 위의 글, 14쪽. 그러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육아밀대일기』 1942년 제7호(1942. 1. 10) 통첩에서는 야마가와(山川) 부대에게는 삿쿠 조달 수량 기준을 병사 1명당 월 2개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월 1개 정도이지만 개별 군의 요청에 따라 조절되었던 것 같다.

39) 이것은 원칙일 뿐, 삿쿠는 육군 수품본창에서만 교부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고와 여러가지 방식의 현지조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서상의 수보다 훨씬 많은 양이 군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